

시장·군수·구청장 대폭 물갈이 현실화

광주 5명 중 3명·전남 22명 중 10명 교체 확정 ... 접전지 많아 더 늘어날 듯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의 대폭 물갈이가 현실화되고 있다.

민선 6기 광주 구청장 5명 중에서는 3명이, 전남 시장·군수 22명 중 10명이 이미 교체가 확정됐다. 광주와 전남 27개 기초단체 중 48%인 13곳의 수장이 바뀌는 셈이다. 앞으로 본선 탈락자가 더해진다면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의 물갈이 폭은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 현역 2명 본선 결과 주목=광주에서는 민선 6기 구청장 5명 가운데 3명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 3선인 송광운 북구청장은 연임 제한에 걸렸으며, 최영호 남구청장과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하려고 사퇴했다가 후보 단일화로 꿈을 접었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민주평화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며, 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된 임우진 서구청장은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다.

따라서 광주 현역 자치단체장 5명 중 2명만이 유일하게 본선을 치르게 되며, 현

역 프리미엄이 있는 이들이 당내 경선을 통과한 민주당 후보와 치열한 선거전을 통해 재선에 성공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도 민주당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할 경우 광주지역 자치단체장의 물갈이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 현역 교체 얼마나=전남 22개 일부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교체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과 조충훈 순천시청, 김성환 장흥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등 민선 6기 단체장 4명이 전남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주 시장이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여수는 전통적으로 재선 시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칙이 확인됐다. 조 시장은 사실상 4선 도전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피로감 누적과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분위기 속에 큰 표차이로 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강진원 군수는 탈당 경력에 따른 10% 감점과 상대 후보들의 정치신인 10% 가점의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서기동 구례군수와 박병중 고흥

군수는 3선을 마쳐 자연스럽게 교체된다. 무안·해남·보성=전직 군수들이 비리 혐의로 자리를 떠나는 바람에 이미 공석 상태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이른바 '미투'가 해자로 지목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따라서 전남 22개 자치단체 중 10곳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교체가 확정됐다.

현재 전남에서는 박홍률 목포시장, 강인규 나주시청, 정현복 광양시장, 최형식 담양군수, 유근기 곡성군수, 구충곤 화순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고길호 신안군수 등 12명만이 연임에 도전한다. 이 가운데 박홍률 목포시장과 고길호 신안군수는 평화당, 정현복 시장과 유두석 군수는 무소속이어서 민주당 후보와의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민주당 현역 단체장을 위협하는 경쟁력 있는 정당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 만큼 현역 물갈이 폭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교육감 선거, 무관심을 넘어라

광주, 장휘국 교육감 3선 출마...이정선·정희곤·최영태 도전

전남, 고석규·장석웅·오인성 예비후보 표심잡기 경쟁 치열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깜깜이 선거'가 우려됐던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25일 현 장휘국(68) 교육감의 3선 도전 선언으로 경쟁구도가 사실상 확정됐고 전남은 고석규(61·전 목포대 총장), 장석웅(63·전 전교조 위원장), 오인성(62·전 나주교육장) 예비후보가 공식인 전남교육감 자리를 두고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판세는 광주의 경우 장 교육감의

지지세가 견고한 가운데 이정선(59·전 광주교대 총장), 정희곤(65·전 광주시의원), 최영태(64·전 전남대 교수) 예비후보 등 3명의 경쟁자가 장 교육감을 집중 견제하며 판을 흔드는 모습이다. 이들은 장 교육감의 '3선 도전'을 문제삼고 재임시절 '형량도 최하위'였던 점을 집중 공격하는 한편 학부모 등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공약 보따리도 하나씩 풀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광주혁신교육감 시민경선' 결과가 나오는 다음달 5일을 기점으로 선거판이 다소 출렁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경제정의실천연대 등 광주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경선에는 정희곤·최영태 예비후보가 참여하고 있다.

전남교육감 판세는 고석규·장석웅 두 예비후보가 앞서고 그 뒤를 오인성 예비후보가 뒤쫓는 것으로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16일 ~ 17일 여수MBC, KBS순천방송국이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등 전남 동부권 시민 2000명을 상대로 벌인 지지도 조사에서는 고 후보가 27.6%, 장 후보가 21.4%, 오 후보가 11.0%로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 7인의 후보들은 이달 말과 내달 초 준비해둔 공약을 대대적으로 내놓으며 본격 표심 잡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정상회담장 타원형 테이블 오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장이 25일 공개됐다. 정상회담 테이블은 궁궐의 교각 난간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두 개의 다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으로 제작됐다.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 5월 중순 미국서 열린다

남북정상회담 D-1

남북정상회담 결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구체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도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관련기사 2·6·8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최종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미정상회담은 내달 중순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 사이에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해왔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현 지시각 24일 오후 3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남북정상회담과 내달 열린 한미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을 한 시간 동안 만났다"며 "두 사람은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상회담 후 상황에 대

해서도 협의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두 사람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직후 전화 통화를 하고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며 "또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두 정상의 만남을 추진하는 방안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를 앞두고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합의에 공을 들이고 있어 주목된다. 비핵화와 관련한 남북 정상 간 '답판'이 단언 주된 의제이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의 긴밀한 소통이 이어져야 하는 만큼 정상회담 정례화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

전남대병원 첫 심장이식수술 ▶7면
전남의 5월은 축제의 계절 ▶18면
KIA 불펜의 활력소 이민우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18 PINK RUN GWANGJU

A MORE BEAUTIFUL WORLD
AMOREPACIFIC

한국유방건강재단

2018 PINK RUN GWANGJU

상무시민공원
2018년 5월 27일 09시30분 출발

종 목 | 10km / 3km
참 가 비 | 1만원(전액 한국 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참가인원 | 3,000명
기념품 | 기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 핑크런 사무국(1688 9744)
참가신청 | 홈페이지 www.pinkcampaign.com
접수시작 | 3월26일 ~ 선착순 접수